

La Comédiathèque

대수롭지 않은 살인

Jean-Pierre
Martinez



comediatheque.net

저작권 및 공연권

본 작품의 텍스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자의 사전 허가 없이 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각색 또는 변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본 희곡은 개인적인 열람을 목적으로 무료로 읽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 및 아마추어를 불문하고 모든 공개 공연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공연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장피에르 마르티네스(Jean-Pierre Martinez)는 프랑스 작가·작곡가 협회인 SACD를 통해 저작권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공연 허가 및 저작권에 관한 문의는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jeanpierremartinez.net/en/contact-2/>

대수롭지 않은 살인

Jean-Pierre Martinez

번역 및 각색: 저자

*본의 아닌 불륜에서 본의 아닌 살인까지,
넘어가는 데는 단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
더 어려운 건 범행의 증거가 되는 시체를 없애는 일이다...*

등장인물

민석
지은
수진

제 1 막

서울 근교의 단독주택 거실. 중산층 보헤미안 취향으로 꾸며졌지만 조금 어수선하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가 아무도 받지 않는 채 울린다. 민석이 몹시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온다. 손에는 피가 묻어 있다. 그는 전화를 바라보기만 하고 잡지 않는다.

민석 - 젠장...

전화벨이 멈춘다. 민석은 손수건을 꺼내 휴대전화를 조심스럽게 집어 주머니에 넣는다. 급히 방을 조금 정리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피 묻은 셔츠를 발견하고 질린 표정으로 들여다본다.

민석 - 아, 이럴 수가...

초인종이 울린다. 민석은 셔츠를 소파 쿠션 밑에 쑤셔 넣는다. 다시 초인종이 울린다.

민석 - 잠깐만!

민석이 잠시 나가 문을 열고, 아내 지은과 함께 돌아온다.

지은 - 미안, 또 열쇠를 놓고 나왔어. 오늘은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오늘 국선번호인으로 살인 혐의를 받는 여자를 맡았거든. 웃기지? 남편을 전동 톱으로 세 토막 낸 여자야. 그런데 말이야... (민석이 듣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차리고 말을 멈춘다.) 너 왜 그래? 새 작품 아이디어가 또 막혔어?

민석 - 응, 그렇긴 한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야...

지은 - 슬슬 무서운데. 무슨 일인데? 설마 어머니가 저녁 먹으러 오신다는 건 아니지?

민석 - 아니, 아니야. 그건 걱정 마...

민석이 소파에 앉는다.

지은 - 그럼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네. 그런데 뭐 먹을래? 나 오늘은 요리하기 싫은데... 회나 시켜서 TV 보면서 먹을까?

민석 - 응... 아니...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야.

지은 - 회 먹는 데도 특별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줄은 몰랐네... (민석 옆에 앉아 입을 맞춘다.) 내가 지금 당장 거실 카펫 위에서 거칠게 덤벼들자는 것도 아니잖아. (민석의 무기력한 반응을 보고) 와, 반응 뜨겁다... 일단 모듬회 두 세트 시킬게. 회는 식을 걱정이 없다는 게 장점이지...

민석 - 시체량은 다르네.

지은이 그 섬뜩한 말에 놀라 민석을 바라본다.

지은 - 좋아... 배달 올 때까지 네 고민이나 들어줄게. 어쨌든 다시 살맛 나게 해줄 테니까... (휴대전화를 꺼내 주문하려 한다.) 초장? 간장?

민석 - 뭐?

지은 - 회 찍어 먹는 거! 초장으로 할까, 간장으로 할까?

민석 – 몰라...

민석이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인다.

지은 – 늘 그렇듯 둘 다 달라고 하지 뭐... (전화에 대고) 네, 배달이요. 모듬회 두 세트요. 주소는 전에 등록한 곳 그대로예요. 초장이랑 간장 둘 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는다.) 삼십 분이면 온대... 자, 이리 와서 앉아. 내가 돌봐줄게... (자리를 만들려고 쿠션을 옮기다가 밑에서 빠져나온 피 묻은 셔츠를 발견해 잡아당긴다.) 이게 뭐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 (민석의 손에 묻은 피를 보고) 너 다쳤어?

민석 – 아니, 난... 이거 내 셔츠도 아니고, 내 피도 아니야...

지은 – 그럼 누구 피인데?

민석 – 지은아, 잘 들어. 나... 사람을 죽인 것 같아...

지은 – 같다고? 무슨 소리야?

민석 – 아니... 같은 게 아니라... 확실해...

지은 – 민석아, 그럴 리가 없잖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누굴 죽이니? 나 봐. 나도 네 어머니를 죽이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아직 안 죽였어. 왜 그런 줄 알아?

민석 – 몰라...

지은 – 내가 범죄자가 아니니까! 충동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득실을 따져. 그리고 네 어머니 목을 조르는 순간의 쾌감 때문에 감옥에서 이십 년을 보내는 건 아무래도 수지가 안 맞는다는 결론을 내리지.

민석 – 남자들이 충동을 참는 데 훨씬 약한가 보네.

지은 – 민석아, 나는 법원에서 매일 범죄자들을 봐. 그런데 넌 아무리 봐도 그런 역할에 어울리는 얼굴이 아니야...

민석 –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오늘 전까지는.

지은 – 그거 네 새 작품 아이디어지!

민석 – 뭐?

지은 – 여자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남편이 자기랑 바람피운 남자를 죽였다고 말하는 이야기? 나한테 아이디어 시험해보는 거지?

민석 – 씨발, 지은아, 나 사람 죽였어. 어떻게 말해야 믿을래?

지은 – 자기가 살인범이라고 주장한다고 다 믿어주는 건 아니거든. 증거가 있어야지.

민석 – 그래...?

지은 – 자기가 하지도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우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난주엔 신부님을 죽였다는 스카우트 대원을 변호했어. 웃긴 건 다른 대원 여섯 명도 자기가 죽였다고 우기더라. 내 의뢰인이 진짜 범인이라는 걸 판사한테 납득시키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민석 –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지은 - 간단했어. 그 신부님의 시신을 어느 나무 밑에 묻었는지 아는 사람은 내 의뢰인뿐이었거든.

민석 - 그래서?

지은 - 그러니까... 시체가 어디 있는데?

민석 - 바로 옆, 부엌에.

지은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지은 - 부엌에? 농담하지 마...

민석 - 가서 볼래?

지은이 부엌 쪽을 바라보다가 망설임 끝에 포기한다.

지은 -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누구데?

민석 - 성훈이...

지은 - 성훈?

민석 - 성훈.

지은 - 안 돼... 하필 성훈이라니...

민석 -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더 나았겠어?

지은 - 세상에, 민석아...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민석 -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지은 - 장난이지? 그렇지?

민석 - 네가 들고 있는 게 성훈이 셔츠야. 봐... 커프스 단추에 이니셜도 새겨져 있잖아.

지은이 커프스 단추를 낚아챈 듯 바라본다.

지은 - S. H. ...

민석 - 성훈. 우리 주변에서 결혼식도 아닌 날 자기 이니셜이 새겨진 커프스 단추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 개박에 없잖아.

지은 - 그런데 민석아... 왜?

민석 - 사고였어...

지은 - 사고? 집에서 난 사고라는 거야?

민석 -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

지은 - 자세히 말해봐! 정원수 가지치기하다가 뒤에서 불일 보던 성훈을 못 보고... 경동맥을 잘랐단가? 그런 거면 걱정 마. 범죄는 아니야. 변호사만 잘 만나면...

민석 - 안타깝게도 그런 식은 아니었어...

지은 - 그럼 어떻게 된 건데?

민석 – 그냥... 과실치사였다고 해두자.

지은 – 어떻게 과실치사야?

민석 – 얘기를 좀 했어.

지은 – 얘기? 말다툼했다는 뜻이지?

민석 – 그래... 말다툼이라고 해도 되고.

지은 – 꽤 격한 말다툼이었나 보네.

민석 – 죽일 만큼 격했지. 그런데 벌써 취조받는 기분인데.

지은 – 미안... 직업병이야.

민석 – 확실한 건 내가 죽였다는 거야.

지은이 충격에 주저앉는다.

지은 – 다 내 잘못이야...

민석 – 뭐?

지은 –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민석 – 네 잘못이라니, 무슨 말이야?

지은 – 너 혼자 두진 않을게, 민석아. 질투 때문에 벌어진 치정 살인이라면 변론해볼 만해.

민석 – 치정 살인? 나랑 성훈이가...?

지은 – 내가 성훈이랑 잤다는 걸 알고 죽인 거잖아. 그렇지?

민석 (*얼어붙어*) – 네가 성훈이랑 잤어?

잠시 정적.

지은 – 그거 때문에 죽인 거 아니야?

민석 – 네가 성훈이랑 잔 줄 몰랐어!

지은 – 오래전 일이야...

민석 – 얼마나 오래?

지은 – 잘 기억 안 나... 한 육 개월?

민석 – 그게 네가 말하는 오래전이야? 이제 공소시효라도 지났다고 하겠네?

지은 – 그건... 사고였어.

민석 – 그래... 집에서 난 사고?

지은 – 사귄 게 아니야, 민석아... 딱 한 번뿐이었고. 난 성훈을 사랑한 적도 없어...

민석 – 그거 참 안심된다...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랑 잘 수 있다는 게.

지은 – 아무 남자나 그런 게 아니야! 성훈 딱 한 명이야. 진짜 단순한 착오였어! 성훈이라고! 내가 성훈이랑 그러는 게 상상이 돼?

민석 – 개는 내 제일 친한 친구야.

지은 – 네가 방금 죽인 친구이기도 하고...

민석 –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긴 건데?

지은 – 그게... 착오였어.

민석 – 알겠네... 본의 아닌 불륜이었다, 그런 거군...

지은 – 바로 그거야!

민석 –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은 처음 듣는다. 그게 네 변론 전략이야?

지은 – 역할을 바꾸지는 말자. 범죄를 저지른 건 너야, 내가 아니고. 이제 경찰한테 설명해야 할 사람도 너고.

민석 – 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야?

지은 –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

민석 – 원래는 나도 신고하려고 했어. 네가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성훈이 네 불륜 상대였다는 걸 알았으니... 아무도 과실치사라고 안 믿을 거야!

지은 – 이제 그게 내 잘못이야? 그리고 개는 내연남 같은 게 아니야. 한 번 잔 게 전부라고!

민석 – 어쨌든 복수라고 생각하겠지. 계획범죄라고. 난 무기징역 받을 거야!

지은 – 설명하면 돼...

민석 – 본의 아닌 불륜이었다고?

지은 – 야! 난 아무도 안 죽였어, 알겠어?

잠시 침묵.

민석 – 그럼 이제 어떡해?

지은 – ‘우리’가 아니라 너지.

민석 – 나 버릴 거야? 내 절친이랑 바람피워 놓고, 내가 그놈 죽였다고 이제 손 털겠다는 거야?

지은 – 네가 죽일 때는 내가 개랑 잔 줄도 몰랐잖아!

민석 – 말꼬리 잡지 말자, 응?

지은 – 그런데 그건 맞네. 애초에 왜 성훈을 죽인 건데?

민석 – 정말 멍청한 이유야.

지은 – 들어보자.

민석 – 그러니까... 개가 내 마지막 작품을 정말 싫어했다고 털어놨어.

지은 – 네 마지막 작품? 〈잔자리안지〉?

민석 – 그래, 최고작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

지은 - 제목은 〈전자레인지〉였는데, 제목은 뜨거워도 흥행은 완전히 얼어붙었잖아.

민석 - 굳이 다시 상기시켜줘서 고맙다...

지은 - 제목 바꾸라고 내가 그랬잖아... 그런데 그거 때문에 죽었다고? 개가 그 작품 재미없었다고 했고, 솔직히 다른 사람들도 다 별로라고 했다는 이유로?

민석 - 오래 묵은 경쟁심을 건드린 모양이지. 성훈이랑 나는 늘 경쟁했어. 여자 문제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부터...

지은 - 그래서?

민석 - 몸싸움까지 갔어. 개가 미끄러지면서 관자놀이를 탁자 모서리에 세게 부딪쳤고.

지은 - 셔츠에 피가 저렇게 묻은 걸 보면 난 칼에 베인 줄 알았어.

민석 - 눈에서도, 코에서도, 귀에서도 피가 막 나왔어. 한참 경련하더니... 갑자기 움직이지 않았어.

지은 - 119는 안 불렀어?

민석 - ‘한참’이라고 했지만 몇 분이었을 수도 있고, 몇 초였을 수도 있어. 너무 당황해서 얼어붙었어. 정신을 못 차렸다고. 겨우 신고하려고 했을 땐 이미 늦었고... (초인종이 울리자 민석이 불안해한다.) 혹시 저 사람들인가?

지은 - 누구? 119?

민석 - 경찰!

지은 - 네가 신고도 안 했는데...

민석 - 이웃이 뭔가 들었을 수도 있잖아.

지은 - 아냐, 수진일 거야...

민석 - 수진? 성훈이 아내?

지은 - 다른 수진도 알아?

민석 - 벌써 어떻게 알아?

지은 - 몰라. 한 시간 전에 전화 왔는데 내가 깜빡했어.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 잠깐 들르겠다고 했거든.

민석 - 문 열지 마.

지은 -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내가 집에 있다고 했는데.

민석 - 맞아... 그럼 네가 나가. 난 부엌에 숨어 있을게.

지은 - 차라리 다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끝내버리게...

민석 - 남편 시체가 바로 옆 부엌 타일 위에 피바다 속에 누워 있다고? 그게 과부가 됐다는 소식을 전하는 좋은 방법 같아?

초인종이 다시 울린다.

지은 - 알았어... 빨리 돌려보내고 나서 생각하자.

민석 – 절대 부엌에는 못 들어오게 해.

민석이 부엌으로 숨는다. 지은은 셔츠를 다시 쿠션 밑에 넣고 문을 열어 간다.

지은 – 잠깐만!

지은이 나갔다가 잠시 뒤 수진과 함께 돌아온다.

수진 –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혹시 성훈 여기 있진 않지?

지은 – 성훈? 왜 그런 생각을 해... 없어. 왜?

수진 – 아래에서 개 스쿠터 비슷한 걸 본 것 같아서. 뭐, 스쿠터가 다 거기서 거기니까.

지은 – 그렇지... 응...

수진 – 민석은?

지은 – 있어. 그런데... 새 작품 쓰는 중이야. 알잖아, 글 쓸 때는...

수진 – 이해하지... 마지막 작품이 그렇게 망했으니 더 그럴겠네. 제목이 뭐였지?

지은 – 〈전자레인지〉.

수진 – 아, 〈전자레인지〉. 제목은 뜨거웠는데 흥행은 완전히 얼어붙었지.

지은 – 설마 그 얘기 하러 온 건 아니겠지...

수진 – 방해해서 정말 미안해. 지금이 좋은 때 아닌 건 아는데, 중요한 일이야.

지은 – 무슨 소리야! 전혀 방해 아니야. 이럴 때 친구가 아니면 누구한테 기대겠어. 뭐 마실래?

수진 – 아니, 괜찮아...

지은 – 잘됐네... *(수진이 조금 이상하게 바라본다.)* 아니, 내 말은... 앉아. *(수진이 셔츠가 숨겨진 쿠션 근처 소파에 앉으려 한다.)* 어... 거기 말고 이쪽에 앉아.

지은이 수진에게 조금 불편해 보이는 작은 보조의자를 가리킨다.

수진 *(앉으며)* – 알았어...

지은 – 소파라는 게 그렇잖아... 앉으면 금방 늘어져서 졸게 되고. 나도 좀 피곤하지만... 네 얘기는 제대로 집중해서 듣고 싶어. *(비슷한 의자를 가져와 앉는다.)* 그래서 무슨 중요한 얘긴데?

수진 – 믿기 힘들겠지만... 성훈이 바람피우는 걸 알아냈어.

지은 – 정말? 넌 몰랐어?

수진 – 몰랐지... 왜, 넌 알고 있었어?

지은 – 전혀! 내 말은... 누구랑인지 알아?

수진 – 정확히는 몰라.

지은 – 다행이다, 다행...

수진 – 뭐가 다행이야?

지은 - 아니, 내 말은... 상대가 누군지까지 알면 더 끔찍하지 않겠어?

수진 - 모르겠어...

지은 - 사실 누군지가 그렇게 중요해? 중요한 건 성훈이 바람피웠다는 거잖아.

수진 - 그래... 네 말이 맞아. 제일 끔찍한 건 내가 아는 사람이랑 바람피웠다는 걸 알게 되는 거겠지.

지은 - 그렇지...

수진 - 상상해봐. 남편이 네 제일 친한 친구랑 바람피우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지은 - 무슨 소리야...?

수진 - 걱정 마. 난 너한테 그런 짓 절대 안 해.

지은 - 고맙다.

수진 - 아무튼 끝이야. 이혼할 거야.

지은 - 너무 빨리 결론 내리는 거 아니야? 혹시... 그냥 사고 같은 거였을 수도 있잖아.

수진 - 사고? 무슨 사고? 정신 딴 데 팔렸다가 실수로 누구한테 들이박기라도 해? 그러고 교통사고처럼 사고 접수하고 보험 처리하면 끝이야?

지은 - 아니,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수진 -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아, 깜빡했는데 오늘 작은 사고가 있었어. 옆집 여자랑 들이받았거든. 그래도 걱정 마, 상대 과실이야' 이러는 거야?

지은 - 옆집 여자랑 들이받았다고?

수진 - 그냥 예를 든 거야! 너 괜찮아? 이 얘기에 나보다 네가 더 충격받은 것 같은데.

지은 - 네가 걱정돼서 그래. 너희 둘은 늘 너무... '성훈과 수진' 하면...

수진 - '민석과 지은'처럼 한 세트였지.

지은 - 그래서 너희가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수진 - 봐. 영원한 건 없는 거야.

지은 - 로미오와 줄리엣도 끝이 좋았던 건 아니잖아.

수진 - 아무튼 난 다시는 그 인간이랑 한 지붕 아래서 안 잘 거야.

지은 - 이해해, 당연하지...

수진 - 그리고 이혼은 네가 맡아줘. 알겠지?

지은 - 내가? 글썄... 너희 둘을 다 아니까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수진 - 농담해? 넌 내 친구잖아! 성훈은 민석 친구고. 우리 그 둘 만나기 전부터 친구였잖아.

지은 - 그건 그렇지...

수진 - 남자들은 다 돼지야, 진짜... 물론 민석까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지은 – 당연하지.

수진 – 그래도 둘이 친구인 이유는 있겠지...

지은 – 너무 나가지는 마. 민석은 정말...

수진 – 두고 봐. 이번 이혼으로 성훈이 피눈물 흘리게 해줄 거야. 너 사람 잡는 변호사잖아, 아니야?

지은 – 뭐?

수진 – 변호사로 말이야! 법정에서 상대를 완전히 끝장내는 변호사라며? 그런 평판이던데.

지은 – 그래?

수진 – 유나가 그러더라. 네가 개 이혼 말았잖아.

지은 – 아, 맞아.

수진 – 남편이 치과 의사였잖아. 강남 한복판에서 꽤 큰 치과를 운영했고. 진료 의자에 누운 여자 환자들이 입을 벌린 게 꼭 치과 치료 때문만은 아니었다더라... 어쨌든 네가 그 남자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었다며.

지은 – 과장은 좀 하지 마... 변호사의 역할이 상대를 벗겨 먹는 건 아니야. 이혼은 함께 살겠다는 계획이 실패한 거고, 우리는 그 헤어짐을 최대한 덜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야...

수진 – 겸손 떨지 마. 네가 얼마나 독한지 알아. 이번엔 성훈 피를 말려버리고 싶어.

민석이 피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돌아온다.

민석 – 왔어?

수진 – 새 대박 작품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민석 – 요리도 좀 같이 하고 있었어...

수진 – 그래?

민석 – 글쓰기랑 요리가 은근 비슷하거든... 좋은 재료, 좋은 레시피, 소금 조금, 매운맛 조금. 그 다음엔 꼭 익히면 돼...

수진 – 몰랐네, 요리까지 잘하는 줄은. 주특기가 뭔데?

민석 – 멧돼지 소시지.

지은 – 저 사람의 유명한 비밀 레시피야. 그거 만들 때는 아무도 부엌에 못 들어가...

민석 – 넌 괜찮아?

지은 – 성훈이 우리 곁을 떠났어... 아니, 수진이... 성훈을 떠나기로 했대...

민석 – 정말?

수진 – 그 자식이 바람피우는 걸 알아냈어. 넌 뭐 아는 거 있었어?

민석 – 내가? 전혀! 내가 뭘 알고 있었겠어?

수진 - 남자들 의리라는 게 어떤 건지 알지. 친구 알리바이 만들어주고, 필요하면 집이나 방까지 빌려주고...

민석 - 완전히 잘못 짚었어, 수진아... 우리 친구잖아. 어떻게 내가...

수진 - 미안, 신경이 곤두서서 그래... 별소리를 다 하네.

지은 - 여기 좀 있다가 진정해. 그다음 집에 가서 자고, 내일 맑은 정신으로 다시 얘기하자. 알겠지?

수진 - 집에? 안 간다고 했잖아! 사실 너희 둘 다 있을 때 부탁 하나 하려고 왔어...

민석 - 원데...?

수진 - 오늘 밤 여기서 자도 될까?

지은 - 그제...

수진 - 내일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 아니면 엄마 집에 가든가. 그런데 오늘은... (*울음을 터뜨린다.*) 혼자 있고 싶지 않아... 너희밖에 없어...

지은이 수진에게 다가가 달랜다.

지은 - 그래, 당연하지...

수진 - 역시 너희라면 받아줄 줄 알았어... 지금 엄마한테 말하기는 싫어. 엄마는 원래 성훈을 싫어했거든. 바람기 많은 놈이라고 늘 그랬는데... 결국 엄마 말이 맞았네. 그래도 지금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잔소리까지 듣고 싶진 않아. 너희랑 있으면...

지은 - 당연히 우리가 있지. 그렇지, 민석아?

수진 - 너희 진짜 친구야. 고마워...

수진이 지은의 품에 안긴다.

지은 - 걱정 마. 다 잘될 거야... 아마도...

민석 - 여자들끼리 얘기해. 난 소시지나 마저 만들게...

지은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민석이 나가는 모습을 본다.

수진 - 지금 성훈이 눈앞에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나도 그 돼지 자식을 갈아서 소시지로 만들어버리고 싶다니까.

지은 - 그런 말 하지 마...

수진 (*눈물을 닦으며*) -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미안해.

지은 - 좀 괜찮아졌어?

수진 - 조금... 이제는 뭐라도 한잔하고 싶다.

지은 - 어... 그래. 뭐 마실래?

수진 - 물 한 잔이면 돼. 신경 쓰지 마, 내가 부엌에서 가져올게.

지은 - 안 돼!

수진 (놀라며) – 아, 맞다... 멧돼지 소시지.

지은 – 지금 너한테 센 게 필요해. 진짜야.

수진 – 글썄...

지은 – 내가 같이 마실게. 나도 한잔 필요해.

수진 – 너도?

지은이 찬장에서 술병과 잔 두 개를 꺼내 따른다. 잔을 들어 건배를 청한다.

지은 – 자, 우리 이 정도 일로 쓰러지진 말자. (감정이 북받쳐) 어쨌게든... 헤쳐 나갈 거야...

지은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 이번에는 수진이 다가가 달랜다.

수진 – 네가 좋은 친구인 건 알았지만, 솔직히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어...

지은이 마음을 추스른다.

지은 – 자, 건배하자. 이걸 마신다고 성훈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마음은 좀 풀리겠지.

지은이 잔을 단숨에 비운다. 수진도 따라 한다.

수진 – 와...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겠네...

지은 – 그러면 좋겠다...

수진 – 이게 뭐야?

지은 – 감자술.

수진 – 아... 확 올라오긴 하는데... 맛은 거의 없네?

지은 – 응.

수진 – 대신 속은 확 뚫린다...

지은 – 그렇지...

침묵.

수진 –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보였지...?

지은 – 뭐가?

수진 – 성훈 말이야! 아무것도 눈치 못 챘어...

지은 – 돌아올지도 몰라... 다 악몽이었고 우리 모두 곧 깨어나는 거라고 생각해.

수진 – 안타깝지만 그럴 것 같진 않아... 아까 상대가 누군지 아느냐고 물었지...

지은 – 누구?

수진 – 성훈이 바람 피운 여자!

지은 – 그래서?

수진 – 한 명뿐이면 그나마 다행이지...

지은 – 무슨 뜻이야?

수진 – 업무용이라던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몰래 열어봤는데, 성훈이 데이팅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어놨더라...

지은 – 데이팅 사이트...?

수진 – ‘하룻밤만.com’... 한 여자랑 바람피운 게 아니야, 지은아. 수백 명이야!

지은 – 설마?

수진 – 완전 성 중독자야. 나이 든 여자, 어린 여자, 통통한 여자, 마른 여자, 긴 머리, 짧은 머리... 가리는 게 없어. 움직이기만 하면 다 건드려.

지은 – 그렇게까지...?

수진 – 나도 이제 알았어... 그런데 그 여자들이 올려놓은 걸 보면...

지은 – 설마 야한 사진까지 올려놨어?

수진 – 아니, 사진 말고 채팅! 그 사이트에서 여자들이랑 나눈 대화 말이야.

지은 – 아... 그래도 거기까진 아니었네.

수진 – 거기까지가 아니긴. 읽어보면 선이란 선은 다 넘었어.

지은 – 그렇게 심해?

수진 – 채팅 내용 보면 기절할걸. 나도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다니까. 나랑 있을 땐 늘 너무 뽀하고 평범했는데...

지은 – 나도 그래... 아니, 내 말은 나랑 민석도.

수진 – 조심해. 다 안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전동 칼이나 전정기, 혹은 전기톱 같은 요란한 소리가 들린다...

지은 – 정원수 가지치기라도 하는 모양이네...

수진 – 멧돼지 소시지 만들면서?

소리가 더 커진다.

지은 – 내가 가서 뭐 하는지 보는 게 낫겠다... 너는 손님방에서 좀 쉬고 있을래?

수진 – 그래. 신경 쓰지 마, 길 알아... 정말 고마워.

수진이 나간다. 민석이 돌아온다.

민석 – 수진 어디 갔어?

지은 – 목 졸라 죽이고 욕조에 넣어뒀어. 귀찮은 목격자는 다 없애는 게 낫잖아.

민석 – 진짜 그런 건 아니지?

지은 – 당연히 아니지! 그런데 너야말로 설명해봐. 저 소리는 뭐야?

민석 – 부엌 한가운데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

지은 – 그래서?

민석 – 냉동고에 넣었어. 시체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까지만.

지은 – 그러고 나서 부엌에서 정원수 가지치기라도 했어?

민석 – 아니... 한 덩어리로 안 들어가길래...

지은 – 세상에...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야, 민석아?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지은이 휴대전화를 꺼낸다.

민석 – 날 감옥에 보내려고?

지은 – 범죄자는 감옥에 가는 거 아니야?

민석 – 사고였다고 계속 말하잖아.

지은이 잠시 멈춘다.

지은 – 그런데 정말 죽은 건 확실해?

민석 – 내가 전정기로 세 토막 내기 전에 정말 죽어 있었냐는 뜻이야? 지금은 아무래도 확실하지 않을까...

지은 – 내가 결혼한 남자 입에서 이런 말을 들을 날이 올 줄은 몰랐다.

민석 – 결혼할 때 그랬잖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미리 생각했어야지.

지은 – 뭘 미리?

민석 – 적어도 내 친구랑 자기 전에는 말했어야지...

지은 – 너 미쳤어, 민석아. 도움이 필요해. 네 말대로 과실치사라면 일시적 정신착란을 주장할 수도 있어.

지은이 번호를 누른다.

민석 – 그러지 마...

지은 –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민석 – 너도 공범으로 몰릴 거야.

지은 – 왜?

민석 – 그 아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지은 – 내가 왜 너를 도와 그런 짓을 했겠어?

민석 – 너도 개한테 배신당했으니까! 복수하고 싶었겠지.

지은 – 내가 성훈한테 무슨 배신을 당해?

민석 – 아까 너희 얘기 다 들었어. 나도 성훈이 그 사이트 계정 있는 거 알고 있었고...

지은 – 그럼 알고 있었어?

민석 – 남자들은 그런 얘기만 나오면 허풍이 심해져... 가끔은 바람피우는 것 자체보다 친구들한테 자기 ‘전리품’을 자랑하는 맛에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야. 사냥꾼 본능 같은 거지...

지은 – 그런데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민석 – 알아서 뭐가 좋았겠어? 수진 앞에서 너만 난처해졌을 텐데.

지은 – 그래, 날 보호하려고 그랬다는 거네. 어쨌든 난 성훈을 죽일 이유가 없어.

민석 – 정말?

지은 – 내가 왜?

민석 – 질투. 수진처럼 너도.

지은 – 너 진짜 미쳤구나...

민석 – 넌 네가 유일한 줄 알았겠지. 그런데 수많은 여자 중 하나였다는 걸 알고 못 견딘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이겠다고 했을 때 복수하려고 도와준 거고.

지은 – 너 정말 미쳤어, 민석아!

민석 – 우리 둘 다 미친 거지. 끼리끼리 만난다고. 내일 신문 제목이 눈에 보인다. ‘악마의 부부, 절친의 시신을 토막 내 부엌 냉동고에 보관... 옆방에서는 과부와 태연히 저녁식사.’

지은 – 경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까지 끌고 내려가려고? 정말 끔찍하다!

민석 – 내가 그렇게 말하겠다는 게 아니야! 판사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지. 내가 혼자 한 일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널 보호하려 한다고 볼 거야.

지은이 흔들리는 표정을 짓는다.

지은 – 정말 그럴까?

민석 – 어쨌든 네 변호사 경력은 끝이야. 내연남을 전정기로 토막 낸 변호사한테 누가 이혼 사건을 맡기겠어?

지은 – 안타깝지만... 네 말이 맞아.

민석 – 그리고 판사 앞에서 ‘실수로 바람피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

지은 – 진짜라니까!

민석 – 본의 아닌 불륜? 좋아, 나부터 한번 설득해봐.

지은 – 네가 〈전자레인지〉 첫 공연 때문에 부산에 갔던 주말이었어. 나는 대전에서 재판이 있어서 갔는데, 그 재판이 갑자기 연기됐고.

민석 – 네가 내 망한 첫 공연 보기 싫어서 도망간 건 아니고?

지은 – 어쨌든 우리 둘 다 집에 없을 예정이었고, 집은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민석 – 성훈이 여자 만나게 열쇠 좀 빌려달라고 했어. 그 여자가 너였던 거야?

지은 – 아니라고! 난 한밤중에 갑자기 돌아온 거야. 네가 집이랑... 우리 부부 침대까지 성훈한테 빌려줘서 여자랑 자게 했는지 몰랐다고!

민석 – 집에 둘이 잘 수 있는 침대가 그거 하나잖아... 그래서?

지은 – 집에 오자마자 바로 침대에 들어갔어.

민석 – 성훈이 있는 침대에...

지은 – 누가 있는 건 알았는데 너라고 생각했어! 공연 끝나고 밤중에 바로 돌아왔나 보다 했지. 어차피 망할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놀랍지도 않았고...

민석 – 고맙다...

지은 – 깨울까 봐 조용히 들어갔어.

민석 – 그런데 결국 침대에 있던 사람이 깬군.

지은 – 성훈이 만나던 여자는 한밤중에 먼저 갔던 것 같아. 그리고 성훈은... 한 번 더 할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고.

민석 – 그러니까 네가 교체 선수로 들어간 거네. 하프타임 끝나자마자 투입된 셈이고...

지은 – 개도 날 그 여자라고 생각했나 봐. 다음 날 아침에야 침대에 있던 사람이 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좀 이상하긴 했지만.

민석 – 왜? 평소보다 좋았어?

지은 – 그런 말 안 했어... 그냥 달랐다고. 그리고 왜 자꾸 나를 ‘미나 69’라고 부르나 이해가 안 됐고.

민석 – 있는 기술은 다 보여줬나 보네?

지은 – 그러니까... 내가 한동안 그렇게까지... 색다른 건 못 겪어봐서.

민석 –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수진이 돌아온다.

수진 – 미안한데... 칫솔 하나 빌려줄 수 있어? 정신없이 나와서 아무 준비도 못 했어.

민석 – 오늘 밤은 침대 잘 보고 들어가. 혹시 모르잖아...

수진 – 어... 그래...

민석 – 난 빠질게. 둘이 나눌 얘기 많겠네... 경험담도 있고...

민석이 나간다.

수진 – 방금 무슨 뜻이야?

지은 – 모르겠어... 아니, 알아.

수진 – 뭔데?

지은 – 내가 바람 피웠다고 의심해.

수진 – 그런데... 사실이야?

지은 – 본의 아닌... 불륜이었어.

수진 – 본의 아닌 불륜...? 농담이지?

지은 – 아니.

수진 – 세상에...

지은 –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내 침대에 남자가 있었어. 다음 날 아침에야 그게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수진 – 말도 안 돼!

지은 – 진짜야.

수진 – 누가 그걸 믿어, 지은아? 설마 남편한테 그걸 설명이라고 한 거야?

지은 – 네 말이 맞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수진 – 아쉽네. 상상해봐. 죄책감 없이 즐기기.

지은 – 벌도 없이...

수진 – 그래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지은 – 솔직히 말하면... 응. 꽤.

수진 – 모르고 그런 거면 진짜 바람피운 건 아니지...? (두 사람 모두 신경질적으로 웃음을 터뜨린다.) 그래도... 성훈이 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면 날 완전히 바보로 본 거겠지...

지은 – 그렇긴 한데... 부부 사이에는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수진 – 용서? 난 진짜 그 인간 죽일 수도 있어.

지은 – 말이 그렇다는 거지?

수진 – 넌 누굴 죽이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 없어?

지은 – 글썄...

수진 – 예를 들어 민석이 바람피우면, 죽일 수도 있어?

지은 – 왜? 혹시 민석에 관해서 아는 거 있어?

수진 – 아니, 아니, 전혀 없어...

지은 – 그럼 너는? 성훈한테 한 번도 바람피운 적 없어?

수진 – 없어... 아니... 어디까지를 바람이라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지은 – 그래?

수진 –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지은 – 알겠다... 오랄 섹스까지 바람으로 치느냐 아니냐, 뭐 그런 얘기?

민석이 돌아온다.

민석 – 자... 이제 밥 먹자.

지은 – 밥 먹자고? 이제 다 자백할 결심이 섰어?

민석 – 저녁 먹자는 말이야...

수진 – 아, 맞다... 멧돼지 소시지...

지은 – 나 잠깐 씻고 올게...

지은이 나간다. 어색한 침묵.

수진 – 지은한테 말 안 했어?

민석 – 뭘?

수진 – 지난 새해 첫날 우리 잠깐 선 넘었던 거.

민석 – 당연히 안 했지! 왜?

수진 – 모르겠어... 좀 이상해 보여서...

민석 – 그거 때문은 아니야. 진짜야.

수진 – 우리가 그 얘기 다시 한 적도 없잖아... 나도 좀 취했고, 너도 그랬고... 아무 의미 없었던 거 맞지? 그냥... 잠깐의 실수였던 거잖아.

민석 – 아, 제발... 너까지 ‘사고’ 얘기 시작하지 마...

수진 – 미안, 괜히 꺼냈다...

민석 – 난 벌써 잊었어...

지은이 조금 불안한 표정으로 돌아온다.

지은 – 그럼 이 멧돼지, 먹어치우는 거야?

초인종이 울린다.

민석 – 이 시간에 누구지...?

지은 – 경찰?

두 사람의 이상한 반응을 본 수진이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민석 – 내가 나가볼게... 오 분 안에 안 돌아오면 내 변호사 불러줘...

지은이 수진을 안심시키려는 듯 눈짓한다.

지은 – 우리끼리 하는 농담이야.

수진 – 알았어...

지은 – 멧돼지 고기 좋아해?

수진 – 뭐... 그럭저럭.

민석이 배달 봉투를 들고 돌아온다.

민석 – 아까 시킨 회 왔어.

지은 – 아, 맞다. 완전히 잊고 있었네.

수진 – 회도 시켰어?

어색한 침묵.

암전.

제 2 막

수진 - 멧돼지 소시지 정말 맛있었어, 민석아.

민석 - 고마워... 하마터면 이 부러질 뻔한 산탄 알갱이는 미안하고. 아무리 조심해도 가끔 하나씩 남더라고.

수진 - 범죄 흔적을 완전히 없애는 게 쉽진 않지? 그런데 네가 사냥하는 줄은 몰랐네...

지은 - 나도 몰랐어. 신기하네...

민석 - 요즘은 사냥이 취미라고 크게 자랑하고 다닐 만한 분위기는 아니잖아.

수진 - 그럼 불쌍한 멧돼지를 진짜 네가 잡은 거야?

민석 - 나 아직 초보라서... 쏘는 솜씨가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

수진 - 응, 그건 인정.

민석 - 총 솜씨 말이야. 사냥할 때.

수진 - 그래도 멧돼지는 꽤 크잖아. 꼭 명사수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아?

민석 - 사실은... 사고에 더 가까웠어.

수진 - 사고? 또?

민석 - 성훈이랑 사냥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 그런데 도로에서 멧돼지가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든 거야.

수진 - 우울증이라도 있던 멧돼지였나 보네. 돼지 인생을 스스로 끝내려고 차에 뛰어든 거지.

민석 - 그랬나 보지...

수진 - 의외네. 너 야외 활동 꽤 많이 하는구나.

민석 - 뭐?

수진 - 사냥도 하고, 골프도 하고...

지은 - 너 골프도 쳐?

민석 - 응, 요즘 조금 다시 시작했어...

수진 - 그런데 성훈이랑 정말 골프 친 거야? 아니면 여자들 만나러 다닐 때 알리바이 만들어 준 거야?

민석 - 진짜 쳤어. 성훈이 원래 잘 놀... 아니, 골프를 꽤 잘 치거든.

수진 - 응... 성훈 말로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산 쪽에 괜찮은 18 홀 골프장이 있다더라. 옆에 리조트도 있고.

지은 - 듣기만 해도 좋네... 다음에 나도 데려가 줘, 민석아. 나도 골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수진 - 어쨌든 멧돼지 소시지 레시피 좀 알려줘. 아, 맞다... 미안. 그것도 비밀이지...

어색한 침묵.

지은 – 샐러드 좀 더 먹을래?

수진 – 고마워, 진짜 더는 못 먹겠어...

민석 – 쉬고 싶으면 손님방 가서 누워.

수진 – 이런 일이 터졌는데 바로 잠이 올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이런 때 기댈 친구가 있다는 건 좋네.

지은 – 여기가 네 집이라고 생각해, 수진아...

민석 – 후식이라도 먹을래?

지은 – 냉동실에 아이스크림 있어...

수진 – 괜찮아... 손만 좀 씻고 올게.

수진이 일어난다.

민석 – 부엌 말고 욕실에서 씻어. 부엌은 좀 어질러져 있어서...

수진이 나간다. 민석은 소시지를 더 덜어 먹는다.

지은 – 넌 참 잘 먹는다. 적어도 식욕은 안 떨어졌네...

민석 – 내가 굶는다고 뭐가 달라져?

지은 – 왜 갑자기 수진한테 사냥한다고 했어?

민석 – 모르겠어... 그냥 순간적으로 나왔어. 수진이 부엌에 코를 들이밀지 못하게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잖아.

지은 – 그런데 이 소시지는 정확히 뭐야? 아니면 내가 안 묻는 게 나야?

민석 – 아니, 아니... 이건 진짜야. 멧돼지 소시지.

지은 – 골프 얘기도 나중에 다시 해야겠어. 그 골프가 좀 수상한데...

민석 – 난 숨기는 거 없어...

지은 – 시체 하나 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는다. 이거 장난 아니지? 장난이면 너무 악취미야. 바로 옆방에 과부가 있다고.

민석 – 못 믿겠으면 냉동고 열어봐. 그런데 미리 말하지만 보기 좋진 않아.

지은 –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알고 싶지도 않고.

민석 – 몰랐다고 하긴 힘들걸... 냉동 만두 사이에 숨겨둔 작은 고깃덩어리도 아니고, 키 195 센티짜리 남자를 65 센티씩 세 토막 내서 넣어놨는데...

지은 – 넌 괴물이야... 시체를 숨긴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나 인생의 제일 좋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게 할 거야?

민석 – 우리 둘 다 같은 배 탔어, 지은아. 네가 도와줘야 해!

수진이 돌아온다.

수진 – 성훈한테 전화할래.

지은 – 지금은 별로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은데.

수진 – 내가 떠난다는 건 알아야지!

지은 –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돼?

수진 – 이미 다 생각했어. 절대 용서 못 해.

민석 – 그래도 직접 말하는 건 내일 해도 되지 않을까?

수진 – 오늘 내가 안 들어가면 어디 갔는지 궁금해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지은 – 아, 그렇다면... 연락은 해두는 게 낫겠다.

민석 – 지금 상태라면 경찰에 전화할 것 같진 않지만...

수진 – 지금 상태?

민석 – 내 말은... 자기도 뭔가 눈치챌 수 있으니까 불편하겠지.

지은 – 그냥 집에 들어가는 건 어때? 자고 나면 내일은 좀 달라 보일 수도 있고...

수진 – 그 자식이랑은 단 한 밤도 더 같은 지붕 아래서 못 자.

지은 – 지금 성훈이랑 통화할 상태는 맞아?

수진 – 걱정 마. 집 팔고 강아지 누가 데려갈지 지금 협상하겠다는 건 아니야. 내 변호사한테 연락하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너.

민석 – 네가 이혼 사건 말하는 거야?

지은 – 글썄... 응... 수진이 부탁했어.

민석 – 좋아... 꼭 지금 전화하고 싶으면... 우리 자리를 비켜줄까?

지은 – 조용한 데서 하고 싶으면 저...

민석 – 부엌만 아니면 돼.

수진 – 괜찮아. 너희 있어도 돼.

수진이 번호를 누른다. 옆방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린다.

수진 – 이상하다... 바로 옆에서 울리는 것 같은데...

민석 – 내 전화겠지.

수진 – 안 받아?

민석 – 받지, 받아... 내가 갈게...

민석이 나간다. 지은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수진 – 계속 울리기만 하네...

지은 – 응... 별로 놀랍진 않다.

수진 – 왜?

지은 – 네 번호가 뜨는 걸 보고 왜 전화했는지 짐작했다면... 안 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수진 – 성훈이야...? 나 다 알아. 뭘 아냐고? 모르는 척까지 하네. 그래, 그놈의 18 홀 골프 얘기. ‘하룻밤만.com’에서는 뭐라고 불리더라? 아, ‘성훈 327’. 너 같은 찌질이가 그 사이트에 얼마나 많으면 흔한 이름에 번호까지 붙여야 하니? 이 개자식아! 그게 다야?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한심한 인간. 끝이야, 성훈 327. 다음부터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한테 해. 너도 아주 잘 알지. 지은이야. 그래, 지은! 네 절친 민석의 아내! 말문 막혔지? 그럼 잘 살아, 이 자식아! (전화를 끈다.) 아, 속 시원하다...

지은은 어안이 벱벱하다.

지은 – 누구였어?

수진 – 누구라니? 개지. 또 누가 있겠어?

지은 – 성훈? 뭐라고 하던데?

수진 – 별말 안 했어. 무슨 말을 하겠어?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 머리로 아프기 시작했어... 욕실에서 물 좀 마셔도 되지?

지은 – 그래.

수진 – 개자식...

수진이 나간다. 민석이 돌아온다.

민석 – 괜찮아? 무슨 일이야?

지은 – 너 나 완전히 속였네!

민석 – 뭐가?

지은 – 수진이 방금 성훈이랑 통화했어.

민석 – 나였어.

지은 – 뭐?

민석 – 성훈이 휴대전화! 주머니에 있던 거니까 당연히 여기 있지... 의심 안 사려고 내가 대신 받은 거야.

지은 – 그래서 수진이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했구나.

민석 – 드라마에서 하는 것처럼 손수건 대고 말했어.

지은 – 너 진짜 제정신 아니다...

민석 – 이러면 알리바이가 생기잖아. 한 시간 전에 여기서 죽었을 리가 없지. 방금 수진이랑 통화까지 했으니까.

지은 – 경찰이 통화 위치를 추적해서 우리 부엌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걸 알아내지만 않으면.

민석 – 설마 경찰이 통화 위치까지 추적하겠어?

지은 – 살인 사건이잖아.

침묵. 민석이 우는 척한다.

민석 –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알아...? 한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없잖아...

지은 – 정말 네 작품 싫다고 했다는 이유로 죽인 거야?

잠시 침묵.

민석 – 아니... 그것만은 아니야...

지은 – 그럼 왜?

잠시 침묵.

민석 – 개가 너랑 잤다고 털어놨어.

지은 – 알겠어... 그런데 왜 바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석 – 네가 스스로 말하는지 보고 싶었어...

지은 – 그러니까 성훈이 단순한 착오였다고 했을 때 너도 안 믿었구나.

민석 – 개는 자기한테는 착오였다고 안 했어. 그게 문제야...

지은 – 개자식... 내가 죽어버릴 거야!

민석 – 이미 내가 했어... 난 그냥 시체 처리하는 걸 도와달라는 거야. 널 사랑한다면... 나 사랑해?

지은 – 당연히 사랑하지. 어떻게 그걸 의심해?

민석 – 믿을게.

지은 – 그럼 나도 믿어줄래? 내가 정말 실수로 성훈이랑 잤다고 하면?

민석 – 노력해볼게... 쉽지는 않다는 건 인정해줘.

지은 –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민석 – 이미 많이 했어. 하지만 네 말이 맞아. 난 빠져나갈 길이 없어. 너까지 공범으로 감옥에 끌고 가고 싶진 않아. 경찰에 신고할게.

지은 – 안 돼, 잠깐!

민석 – 왜?

지은 – 네가 몇 년씩 감옥에 있는 건 싫어.

민석 – 그럼 어떡해?

지은 – 성훈 시체 없애는 걸 도와줄게...

민석 – 어떻게?

지은 - 믿어.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별별 비밀을 다 털어놔. 거의 이 미터짜리 시체도 가성소다에 하룻밤 담가두면 옥조 배수구로 처리할 수 있다는 식의 끔찍한 방법까지 들은 적이 있어.

민석 - 그래...

지은 - 그런데 우선 저 여자부터 치워야 해.

민석 - 치워?

지은 - 아니, 우리 눈앞에서 잠깐 없어지게 해야 한다는 뜻이야!

민석 - 놀랐잖아...

수진이 돌아온다.

수진 - 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은 - 아니, 전혀.

수진 - 좀 누워 있으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

민석 - 마음 좀 가라앉히게 한잔할까?

수진 - 약도 먹었는데... 술이랑 섞어도 괜찮을까?

지은 -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소화도 될 거야.

수진 - 사실 멧돼지 고기가 좀 더부룩하긴 하네... 맛은 있었는데 좀 무겁지?

지은이 잔 세 개에 술을 따르고, 그중 한 잔에 몰래 알약을 넣는다.

민석 - 아, 그 독한 술 또 꺼냈네...

수진 - 감자술...

지은 -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담근 특산주래.

수진 - 산골 마을?

민석 - 지은 삼촌이 거기 사는데 신부님이야. 밤마다 성당 지하실에서 몰래 증류한다나 봐.

뜬생각에 빠진 수진은 반쯤만 듣고 있다.

수진 - 성훈은 대체 어디서 여자들을 만났던 걸까.

민석 - 호텔은 어디에나 있잖아.

수진 - 개가 얼마나 짠돌이인데. 돈 내고 방 잡았을 것 같진 않아. 그 사이트 가입한 것도 돈 주고 성매매하기 싫어서였을걸. 사진 보면 정말 가리지도 않았어...

지은 - 고맙다...

수진이 이상하다는 듯 지은을 본다.

민석 - 그런데 왜 자꾸 성훈 얘기를 과거형으로 해?

수진 - 뭐?

지은 – 방금 ‘얼마나 짝돌이였는데’라고 했잖아.

수진 – 나한테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지은 – 그런 말 하지 마...

수진 – 아니면 친구가 집을 빌려줬겠지. 이런 일에는 남자들끼리 참 의리 좋잖아. 민석, 너까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민석이 수진의 잔에 술을 더 따른다.

민석 – 그만 생각해. 너만 힘들어져... 한잔 더 해.

수진 – 나 왜 이러지... 아까는 잠이 안 오더니, 갑자기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 나 자러 가야겠다...

수진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다.

민석 – 약효가 이제야 오나 보네...

지은 – 약보다 내가 술에 넣은 수면제가 더 잘 들은 거겠지.

민석 – 너 진짜 넣었어?

지은 – 이제 시체 처리하는 동안 방해받을 일은 없겠네.

민석 – 수진 시체?

지은 – 성훈 시체! 도와줘. 수진은 손님방에 눕혀놓자. 내일 아침에 깨면 공식적으로 과부가 돼 있을 거야.

민석 – 이혼 절차의 번거로움까지 우리가 없애주는 셈이네.

지은 – 결국 좋은 일 해주는 거네.

둘은 수진의 발을 잡아 무대 밖으로 끌고 갔다가 곧 돌아온다.

민석 – 그럼 성훈은 어떻게 해?

지은 – 가성소다로 처리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민석 – 특히 수진이 내일 아침에 목욕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지은 – 맞아...

민석 – 성훈을 쓰레기봉투 세 개에 나눠 담아서 근처 야산으로 가져가자...

지은 – 동물원은 어때? 영화에서 본 적 있어... 맹수 우리에 던지면 흔적도 안 남잖아.

민석 – 쓰레기봉투 세 개 들고 동물원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지은 – 밤에 담 넘어가면?

민석 – 그냥 근처 야산이 낫겠다. 창고에 샅도 있어.

지은 – 성훈... 처리하는 거, 내가 도와줄까?

민석 – 큰일은 이미 다 했어. 내가 할게. 너무 지저분해...

지은 - 네가 원한다면...

민석이 나간다.

지은 - 내가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도 없고. 좋아, 가기 전에 한 잔만 더...

지은이 술을 한 잔 더 따라 단숨에 마신다. 휴대전화가 울린다.

지은 - 여보세요... (당황하며) 성훈? 이게 장난이면 정말 악취미야. 민석이야? 뭐? 성훈, 진짜 너야? 아니, 놀란 건 아닌데... 아니, 조금 놀랐어. 아, 휴대전화를 여기 두고 갔다고. 응, 민석이 너희가... 얘기했다는 건 말했어.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굳이 했어? 뭐,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언젠가는 나을 얘기였겠지. 알았어, 전할게. 그래, 전화해줘서 고마워. 수진이랑은 얘기했어? 응, 뭔가 눈치챈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알았어, 끊어. (전화를 끊는다.) 이 자식, 날 완전히 갖고 놀았네...

민석이 쓰레기봉투를 들고 돌아온다.

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 다 했어?

민석 - 응. 얼어서 덩어리들이 냉동고 바닥에 붙어 있더라. 얼음송곳까지 써서 떼어냈어...

지은 - 불쌍한 성훈... 이렇게 '최종 재활용'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네...

민석 - 어쨌든 뭐라고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엄청난 사랑의 증명이야.

지은 - 그럼 내 본의 아닌 불륜은 용서해주는 거지?

민석 - 그럼... 네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줬잖아.

지은 - 나도 네 절친을 내 침대에 들여놓고 말도 안 한 건 용서해줄게. 됐지?

민석 - 아직 봉투 두 개 더 가져와야 해.

지은 - 같이 갈게...

민석 - 정말?

지은 - 아까 네가 그랬잖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둘이 나간다. 수진이 몽롱한 상태로 들어온다.

수진 - 너희 있어? 내 휴대전화 어디 뒀지?

수진은 쓰레기봉투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본다. 휴대전화를 찾다가 소파 쿠션 밑에서 피 묻은 셔츠와 커프스 단추를 발견한다. 점점 정신이 들기 시작한다. 봉투 하나를 열었다가 공포에 질려 바로 닫는다. 그때 민석과 지은이 다른 두 봉투를 들고 들어온다.

민석 - 수진아, 너 여기서 뭐 해?

지은 - 안 자?

수진 - 잤지... 아니, 자다가... 휴대전화가 생각나서...

민석 - 우리 쓰레기 버리러 나가려던 참이야...

수진 – 다시 잘게. 나 신경 쓰지 마...

수진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나간다.

민석 –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지은 – 수진도 그냥 없애버릴까?

민석 – 날 위해 사람까지 죽일 수 있다는 거야? 거의 무서운데...

지은 (흥분해서) – 그런 사랑 노래 있잖아! 네가 원한다면 조국도 배신하고, 친구도 버리겠다는...

민석 (불안하게) – 지은아, 사실 고백할 게 있어...

지은 – 또 누굴 죽였다는 말은 하지 마!

민석 – 아니, 그 반대야... 아니, 맞기도 하고...

지은 – 불쌍한 성훈... 그래도 친구였는데.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어. 머리는 어느 봉투에 넣었어?

민석 – 나라면 열어보지 않겠어...

지은 –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민석 – 알았어. 봉투 안에 있는 건 성훈이 아니야.

지은 – 성훈이 아니라고? 그럼 다른 사람을 죽인 거야?

민석 – 아니, 내 말은 아무도 안 죽였다고... 어떻게 그걸 진짜 믿었어?

지은 – 이제 나도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봉투 하나를 열었다가 웃음이 얼어붙는다.) 으악... 이게 뭐야? 그럼 진짜 뭔가를 죽인 거잖아?

민석 – 아니! 그러니까... 죽인 건 맞지만...

지은 – 이게 대체 뭐야?

민석 – 멧돼지...

지은 – 멧돼지? 민석아, 너 사냥 안 하잖아... 아니면 이것도 나한테 숨겼던 거야?

민석 – 사냥 안 해. 그건 안심해도 돼. 하지만 멧돼지 얘기는 진짜였어.

지은 – 그래? 그럼 한번 들어나 보자.

민석 – 성훈이랑 같이 있었어. 골프 치고 오는 길이었고.

지은 – 이제 골프야? 설마 17 번 홀과 18 번 홀 사이에서 골프공으로 멧돼지를 잡았다는 건 아니겠지?

민석 – 골프 끝나고 차로 돌아오는데 산길에서 멧돼지가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들었어. 우리도 거의 죽을 뻔했어. 이백 킬로짜리 멧돼지를 시속 구십으로 들이받으면 큰 SUV도 멀쩡하진 않거든.

지은 – 우리 차도 망가뜨렸어?

민석 –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야? 차가 도로 밖으로 나갔고... 성훈은 조금 정신을 잃었어.

지은 – 그래서?

민석 – 아직 살아 있어서 치료하려고 데려가기로 했어.

지은 – 성훈을?

민석 – 멧돼지를! 트렁크에 싣고 동물병원으로 갔는데, 도착했을 땐 이미 죽어 있었어.

지은 – 누가?

민석 – 멧돼지가!

지은 – 알았어...

민석 – 어차피 멧돼지가 트렁크에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성훈이 소시지로 만들
자고 했지.

지은 – 아... 좋은 생각이었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한 거야?

민석 – 멧돼지를 손질하다가... 성훈이 너랑 잤다고 털어놨어.

지은 – 멧돼지 사체를 뜯다 보니 고백할 기분이 났나 보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성훈은
자기가 친구 집 침대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민석 – 그래서 죄책감이 든다고 했어. 양심의 짐을 덜고 싶다나.

지은 – 양심? 성훈한테 그런 게 있었어?

민석 – 네 말이 맞아. 사실은 날 모욕하고 싶었던 것 같아... 자기도 ‘본의 아닌 불륜’이었다고
핑계를 대면서.

지은 – 그래서?

민석 – 결국 자기는 무슨 짓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어... 너도 그랬을 거라고
했고.

지은 – 개자식... 난 정말...

민석 – 널 믿어. 개가 그냥 날 상처 입히고 싶었던 거야. 말했잖아, 늘 나를 질투했다고. 사실
은 오래전부터 날 싫어했던 거지. 어쨌든 몸싸움이 벌어졌고...

지은 – 그래서 셔츠에 피가...

민석 – 아니, 그건 멧돼지 피야. 트렁크에 싣을 때 묻은 거고.

지은 – 아...

민석 – 그러고 나서는 화해했어. 내가 다른 셔츠 하나 빌려줬고 개는 갔어.

지은 – 그다음엔?

민석 – 네가 들어왔을 때는 너한테 화가 나 있었어. 성훈이랑 잤다는 걸 나한테 숨긴 게 너무
배신처럼 느껴졌어.

지은 – 미안해. 하지만 난 진짜 몰랐어...

민석 - 그때 그 생각이 떠올랐어. 갑자기. 멧돼지를 해체하다 보니 나도 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소시지 레시피는 인터넷 요리 블로그에서 봤고...

지은 - 인터넷에서?

민석 - 널 벌주고 싶었어. 그래서 성훈을 죽였다고 한 거야. 네 반응을 보려고. 그런데 일이 계속 커져버렸지...

경찰차 사이렌이 들린다. 지은이 봉투 밖으로 빠져나온 셔츠를 발견한다.

지은 - 수진이야... 봉투랑 셔츠를 봤어. 경찰 불렀나 봐...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수진이 큰 칼을 들고 들어온다.

수진 - 가까이 오지 마, 이 미친 인간들아...

지은 - 진정해. 다 설명할게. 그냥 아주 멍청한 장난이었어...

민석 - 봉투 안에 성훈 있는 거 아니야. 진짜야.

수진 - 한 발짝만 움직여, 바로 쏠 거야!

민석 - 그거 칼인데...

지은 - 하나 열어볼게. 직접 보면 알 거야.

지은이 봉투 안을 보여준다.

수진 - 이 끔찍한 게 대체 뭐야?

민석 - 멧돼지야! 봐, 털이 엄청 많잖아.

수진 - 성훈도 털 많았어!

지은 - 이 정도는 아니었어...

수진 -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무대 밖 목소리 - 경찰입니다!

민석 - 네가 불렀으니까 네가 설명하는 게 낫겠다.

지은 - 쉽진 않겠네...

수진 - 알았어...

수진이 나간다.

민석 - 미안해. 내가 바보 같은 짓 했어. 하지만 배신당했다고 느꼈어...

지은 - 내 잘못도 있어... 바로 말했어야 했는데. 네가 안 믿을까 봐 겁났어...

민석 - 우리 둘 다 바보였네.

지은 - 역시 문제를 그냥 덮어둔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네... 결국 언젠가는 다시 튀어나와 뒤통수를 치는 거야.

민석 - 맞아. 그러니까 너도 수진한테 말하는 게 좋겠어.

지은 – 뭘?

민석 – 성훈 얘기.

지은 – 어차피 개는 움직이는 건 다 건드렸잖아.

민석 – 그래도 넌 수진의 제일 친한 친구잖아...

수진이 돌아온다.

수진 – 다 해결됐어. 경찰도 갔어.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지은 – 오늘 밤은 다들 좀 이상해... 보름달 때문인가 봐...

수진 – 오늘 보름달이야?

지은 – 아니어도 비슷한 밤이네.

민석 – 난 빠질게. 둘이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민석이 나간다.

수진 – 무슨 뜻이야?

잠시 침묵.

지은 – 나도 성훈이랑 잤어.

수진 – 뭐?

지은 – 맹세해. 정말... 본의 아니었어.

수진 – 아까 네가 말한 그 황당한 이야기가... 너랑 성훈 얘기였어?

지은 – 오래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어.

수진 –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지은 – 이 멍청한 민석이 성훈이 여자 만날 때 쓰라고 우리 부부 침대까지 빌려줬거든...

수진 – 알았어, 믿을게... 더 자세히는 듣고 싶지 않아... 그래도 넌 내 제일 친한 친구잖아.

지은 – 고마워, 수진아.

수진 – 술 좀 과하게 마시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지은 – 난 완전히 맨정신이었어.

수진 –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결국 진짜 잘못된 건 성훈이야. 지금 눈앞에 없어서 다행이야. 있었다면 진짜 죽여버렸을지도 몰라!

지은 –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이진 않아, 걱정 마... 그래도 변호사 필요하면 내가 있어. 이혼 얘기야...

수진 – 고마워... 난 이만 갈게. 너희도 둘이 할 얘기 많겠지... 오늘은 엄마 집에서 잘래. 열쇠를 두고 나왔다고 하면 되지.

지은 – 그래... 내일이면 좀 더 선명해질 거야. 우리 모두에게...

수진이 나간다. 민석이 돌아온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잠시 말없이 있다.

민석 – 정말 본의 아니었던 거야?

지은 – 그럼... 의식도 못 한 채 그랬다고 해두자.

민석 – 좋아. 믿는 척해줄게.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는다.

지은 – 그런데 솔직히 그 일 이후로 내 성욕이 좀 살아난 건 사실이야...

민석 – 응, 나도 느꼈어. 이유가 뭔가 했지.

지은 – 우리 이런 거 좀 더 자주 해야겠어.

민석 – 무슨 뜻이야... 우리 부부 침대에서 하는 블라인드 데이트 같은 거?

지은 – 또 우리 집을 친구들 불륜 장소로 빌려주고 있어?

민석 – 나는 반대로 생각했는데. 네 친구들 중에도 남편 몰래 만나면서 장소 필요한 사람 있겠지... 너는 이미 한 번 앞서갔잖아. 이제 내 차례 아닌가?

지은 – 미안하지만 내 친구들은 다 충실해...

민석 – 못 믿겠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 솔직히 나도 그 생각, 좀 흥분되네...

음악. 두 사람이 입을 맞춘다.

암전.

에필로그

거실 한쪽에 여행가방 세 개가 놓여 있다. 민석이 밖에서 들어와 외투를 벗는다.

민석 – 여보! 있어?

지은이 들어온다.

지은 – 어떻게 됐어?

민석 – 작품이 너무 좋대. 다음 시즌에 올리기로 했어.

지은 – 정말? 대박이다!

민석 – 제목도 기가 막힌대.

지은 – 〈대수롭지 않은 살인〉 ... 그래도 〈전자레인지〉 보다는 훨씬 낫잖아.

민석 – 아무래도 실화에 가까우니까...

지은 – 거의.

두 사람이 입을 맞춘다.

민석 – 결국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네.

지은 – 난 늘 네 재능을 믿었어... 네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도.

민석 – 결국 이번 일 덕분에 우리 사이도 더 가까워졌어.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지은 – 나도 다시는 숨기는 거 없을게.

민석의 시선이 여행가방에 멈춘다.

민석 (불안하게) – 저 가방들은 뭐야? 벌써 나 떠나려고? 방금 그런 말까지 해놓고...

지은 – 수진 집이야. 오늘 밤 여기서 자도 되냐고 했어. 성훈이랑 일이 별로 좋게 끝나지 않은 것 같아... 갈 데가 없대.

민석 –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언제까지 우리가 챙겨줘야 하는 거야...

지은 – 이 정도는 해줘야지...

민석 – 좋아... 딱 하룻밤만.

초인종이 울린다.

지은 – 수진인가 봐...

민석 – 좋아, 샴페인 가져올게.

지은 – 수진 이혼 축하하려고?

민석 – 내 작품 제작 확정 축하하려고! 뭐, 수진이랑 같이 마시지.

민석이 나간다. 지은이 문을 열어 갔다가 수진과 함께 돌아온다.

지은 – 얼굴이 왜 그래. 싸웠어?

수진 – 지은아... 나 사고 친 것 같아...

지은 – 무섭게 왜 그래... 무슨 사고?

수진 – 내가 성훈을 죽인 것 같아.

지은 – 아, 안 돼. 그 수법은 이미 한 번 당했어. 두 번은 못 당해!

수진 – 우리 둘이 얘기를 좀 했는데 금방 싸움이 났어. 그래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지은 – 그다음엔?

수진 – 성훈이 가방 싸러 갔어. 그 뒤로 일이 조금... 커졌지.

지은 – 조금?

수진 – 내가 닭을 손질하고 있었거든... 큰 식칼을 들고 있었는데... 순간 좀 흥분했어.

지은 – 성훈은 어디 있어? 병원?

수진 – 안타깝게도 119 를 부르기엔 이미 늦었어. 겁만 주려고 했는데 개가 나한테 달려들 듯 다가왔고, 나도 모르게 칼을 휘둘렀다가... 경동맥을 그어버렸어.

지은 – 세상에... 악몽이 계속되네. 그래서 성훈은 어디 있는데?

수진이 여행가방들을 눈짓으로 가리킨다.

수진 – 저기... 가방 안에.

지은 – 설마...

수진 – 네 조언이 필요해, 지은아.

지은 – 변호사 조언? 너무 기대하지는 마, 수진아. 내가 아무리 ‘사람 잡는 변호사’라도... 이 걸 단순한 집안 사고라고 우기긴 힘들어...

수진 – 나는 오히려 가성소다에 좀 담가줬다가 욕조 배수구로 처리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은 – 이건 민석이랑 상의해봐야겠다...

민석이 기분 좋은 얼굴로 샴페인 병을 들고 돌아온다.

민석 – 샴페인!

두 여자가 어이없다는 듯 민석을 바라본다.

압전.

저자 소개

저자 (Jean-Pierre Martinez) 1955년 (Auvers-sur-Oise)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현재는 프랑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1980년대부터 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1985년에 첫 번째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100여 권의 책을 썼으며, 123 편의 희곡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세계 100여 개국 이상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프랑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현재는 프랑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1980년대부터 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1985년에 첫 번째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100여 권의 책을 썼으며, 123 편의 희곡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세계 100여 개국 이상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프랑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프랑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jeanpierremartinez.net

저작권 및 공연 안내

저자: Jean-Pierre Martinez

번역 및 각색: 저자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복제, 배포, 공연, 전시, 전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 본 저작물의 무단 사용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복제, 배포, 공연, 전시, 전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 본 저작물의 무단 사용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저작물은 전문 및 아마추어를 불문하고 모든 공개 공연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공연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본 저작물은 Jean-Pierre Martinez (Jean-Pierre Martinez)의 저작물이며,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SACD (Société des Auteurs et Compositeurs Dramatiques)에 있습니다. 본 저작물의 무단 사용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저작물은 Jean-Pierre Martinez의 저작물이며,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SACD (Société des Auteurs et Compositeurs Dramatiques)에 있습니다. 본 저작물의 무단 사용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연락처 페이지 링크

<https://jeanpierremartinez.net/en/contact-2/>

아비뇽 - 2026 년 10 월

© Jean-Pierre Martinez